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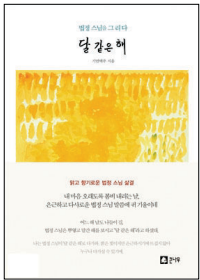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18 ~ 3/24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지금 여기 깨어있기	법륜스님	정토	6	순따니빠(배알리원전번역)	일야스님	불광출판사
2	꽃잎이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네	법성스님	어백	7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법성스님	민족사
3	검색의 시대, 사유의 회복	법인스님	불광출판사	8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	이제열	모과나무
4	인공지능 붓대를 꿈꾸다	지승호	은주사	9	뒤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5	이미타경을 읽는 즐거움	동봉스님	민족사	10	젠 만다라 컬러링북	Dessain of Tola	담엔북스



법정 스님의 죽비 법문이 그림다



달 같은 해
변택주 지음
큰나무 펴냄
1만4천원

“살 때는 삶에 철저히 그 모두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죽음에 철저히 그 모두가 죽어야 한다. 꽃은 필 때뿐 아니라 질 때도 아름다워야 한다.”

무소유를 강조하며 큰 울림을 주었던 법정 스님이 입적한지도 5년이 흘렀다. 세월이 유수갈다는 말이 실감난다. 올해도 어김없이 5주기 추모법회가 3월 16일 서울 성북구 길상사 설법전에서 열렸다.

스님의 사제이자 송광사 원로인 법흥 스님은 추모법문 “법정 사형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분이였다”며 “특히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모두 잘라냈다”고 엄격한 수행정신을 회고했다. 상좌인 길상사 주지 덕은 스님도 “은사 스님의 죽비 같은 말씀이 더욱 그리워지는 시절”이라고 스승을 그리워했다. 법정 스님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친 회고는 비단 사형사제만이 아니었다.

1998년 법정스님과 첫 인연을 맺은 뒤 가르침을 받고 법정 스님의 뜻을 받드는 시민교인 박고향기롭게 이사를 지낸 변택주 씨도 스님을 흠모하는 이중 하나다. 특히 지근거리

저자, 1998년 스님과 첫 인연
크고작은 인연들과의 일화 소개

서 스님을 모셨던 변씨는 스님에 대한 일화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 변씨는 이번 법정 스님 5주기 맞아 스님에 얽힌 일화를 소개한 책을 펴냈다.

이번 책은 전작인 <법정 스님 숭경>과 <법정, 나를 물들이다>서 스님을 기릴 수 있는 일화들을 가려 뽑은 내용들이다. 이 일화들은 저자가 직접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은 것들이어서 생생하게 전해진다.

여기서 소개된 일화들은 마치 옆에서 법정 스님이 직접 육성으로 전해주시는 것처럼 들린다.

“법정스님이 말하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떨리하라는 얘기야. 본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없으니 적은 것에 기꺼워해 쓸 만큼 가지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면 더는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깊은 말씀이야. 그래서 늘 입에 말이 적고 마음에 일이 적고 배에 밥이 적으면 도업을 이룬다고 하셨어.”

저자는 어느 해 남도 나들이에서 법정 스님이 뿌옇고 맑긴 해를 보고는 “달 같은 해”라

고 말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법정 스님이 자신에게는 밝은 빛이지만 은근하기에 뜨겁지 않아 누구나 다가설 수 있는 ‘달 같은 해’라고 추억했다. 이번 책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다.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지만 가르침 만큼은 아직도 생생하다. “녹록치 않은 이 세상 살아가려면 주어진 순간순간 있는 힘껏 목숨 걸고 온글게 살다가, 목숨 내놓고 세상 떠날 땐 티끌만한 미련도 두지 말고 떠나라는 서슬 시퍼런 말씀. 오늘도 물러섬이 없고 누워침 없는 오붓한 삶을 살아내려고 다지며 신발 끈을 조이고 있지. 스승 말씀 가운데 가장 뼈저리게 와 닿는 말씀이야. 스승은 살아만 고통을 견뎌내는 일이라는 말씀을 늘 하셨어.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은 다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겉으로는 평온하게 사는 것 같지만, 누구나 내면에서는 건디기 어려운 일들이 많다. 힘들음 견디면서 살아내는 일이라는 본질이라고.”

법정 스님은 가까운 젊은이들에게 늘 글쓰기의 중요성도 강조하셨다고 저자는 회고한다. “법정 스님은 쉬운 말로 글을 쓰지만, 그런 글이 절대 평범한 사고만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글이 펄펄 살아 숨 쉬는 까닭은 복잡한 생각을 다 거치고, 많은 고민과 깨우침 끝에 나온 결정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아니지.’ 하는 말씀은 치열한 검증을 거쳐서 나온 말씀이에요. 강하게 말씀하시든 부드럽게 말씀하시든, 시냇물이 흐르듯이 사회에 건강한 생각이 계속 흐르게끔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법정 스님이 주신 장학금으로 공부한 문헌철 초당대 교수는 이렇게 스님을 회고했다고 한다. “법정 스님은 당시에 대학 때 쓴 일기가 대학노트로 몇 권 있다고 하시면서 일기를 왜 밤에만 쓰려고 하느냐. 쓰고 싶을 때 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기를 아침에 씁니다. 스님에게 입은 은혜는 등록금보다도 많이 정돈된 일이 더 큼니다. 모든 문제가 길고 짧은 시간 체에 걸려졌습니다. 스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유산은 긍정과 시작 그리고 희망입니다.”라고.

이처럼 이 책에는 크고 작은 인연들이 법정 스님에게 받은 가르침들이 소개돼 있다. 법정 스님의 유언에 따라 스님이 펴낸 책이 절판된 지금, 스님의 가르침을 간접적으로나마 전해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다. 이 책이 주는 또다른 즐거움이다.

김주일 기자

기독교인들에게 던지는 화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있을만하면 하나씩 터져 불자들의 마음을 후벼파는 것이 있다. 바로 불교를 폄하하는 훼불 사건이다. 국보 제 32호이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이 있는 합천 해인사에서 40대 여성이 2시간 넘게 경내를 돌아다니며 낙서를 했는가하면, 충북 진천 용화사 석조여래입상이 쇠망치에 의해 훼손되기도 했다. 훼불행위는 꼭 성보를 망가뜨리는 일에만 그치지 않는다. 최근 봉은사역 지정을 앞두고 친일사찰이란 어불성설인 주장을 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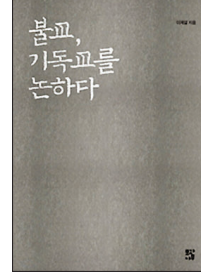
이렇듯 끊임없이 이어지는 훼불사건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기독교의 확고한 교리관과 무관치 않다.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그들의 믿음을 대한민국 사회에 강요한다.

이에 반해 ‘자비’와 ‘관용’을 부각시키는 불교는 별로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책은 불교적 관점에서 기독교를 해부한 것이라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저자는 해박한 불교지식과 명쾌한 논리로 정경이는 유마선원 이제열 원장이다. 이 책은 기독교 교리를 유일신론, 창조론, 섭리론, 원죄론 등 38가지로 세분화한 뒤 이를 철저히 불교적 관점에서 논박한다. 이 시도는 2600여 년 전, 부처님이 이 땅에 펼친 정법(正法)을 기준으로 기독교 사상을 평가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예를 들어 불교는 기독교의 ‘여호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하는 점이다.

저자는 “불교에서는 의식과 느낌과 감정에 빠져있으면 번뇌에 물든 것이고, 번뇌에 물든 자는 중생에 속한다고 말한다. 여호와와 대상을 두고 사랑했다가 곧 미워하는 등 희비를 일으키기 때문에 완전한 자, 깨달은 자가 아니라 번뇌에 물든 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기독교가 ‘우상’이라고 주장하는 석가모니가 진리의 관점에서 ‘완성된 자’이고, 되레 여호와가 ‘번뇌에 물든 중생’임이 양 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때문에 처음에는 꽤나 낯설다가도 빈틈없는 논리 전개에 어느 순간 수긍하게 된다. 더욱이 불자들이라면 기독교의 폭력에 가까운 언행에 대응할 논리를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불교에 대한 자긍심까지 얻을 수 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이웃종교에 대해 공격성을 띤 기독교인들에게 불교가 던지는 화두이기도 하다. 저자의 기획 취지를 이해한다면 이 책은 기독교인들에게 종교를 바라보는 세 안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
이제열 지음
모과나무 펴냄
1만 3천원

목과 믿음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선사한다. 독선적 자세를 고수하며 그 어떤 종교와도 비교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이 불교라는 거울을 통해 스스로의 새로운 모습을 바라보는 계기가 된다.

물론 기독교 교리와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불교적 관점에서 조목조목 논박하는 이 책이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다소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자의 말처럼 진정한 대화는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 책은 결국 기독교인들의 불교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기독교 교리 38가지로 세분화 시켜
철저히 불교적 관점에서 논박 특징
명확한 차이 안 뒤 상호 이해가 목적
기독교인들 불교이해에 대한 출발점

적지 않은 이들이 ‘불교와 기독교는 동일하다’고 이야기한다. 가는 길만 다를 뿐 결국 종착역에선 만난다고 설명한다. 그러기에 의미 없는 논쟁은 멈추자고 말한다. 언뜻 평화를 지향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 논리에, 마찬가지로 많은 이들이 동조한다.

그러나 이는 양 종교가 탄생한 배경,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지향하는 목적을 무시한 선부론 주장에 불과하다. 하지만 진리가 서로 다르지 않다면 불교는 탄생하지 않았다. 불교는 철옹성 같은 바라문교의 권위와 카스트제도에 맞서 인간이 평등한 존재임을 이론적으로 입증했다.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는 시대에 여성 비구니 교단을 세운 것도 이러한 불교의 독창적인 사상에서 비롯됐다.

불교는 인간관계에 있어 무한한 자비를 강조했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털끝만큼도 물러서지 않았다. 불교는 인간관계의 자비 실천을 강조했다. 법에 있어서는 한순간도 치열함을 포기하

지 않았다. 불교는 해탈을, 기독교는 구원을 목표로 한다. 해탈은 번뇌가 사라진 상태이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다. 해탈은 자력으로 얻는 것이지만 구원은 타력으로 얻는 것이다. 한 쪽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깨달음을 완성하는 데 반해 다른 한 쪽은 하나님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앞에서 회개를 해야 한다.

이처럼 양 종교가 제시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그에 이르는 길은 엄연히 다르다.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는 불교와 기독교가 동일하다는 억지 주장을 거부하고 그 차이를 상세히 밝힌다. “두 종교 사이에는 비록 공통점이 존재한다 해도 세계와 인간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애써 불교와 기독교의 동질성을 찾기 위해 여러 논거를 들어도 어디까지나 연꽃은 연꽃이고 포도는 포도인 것이다.”

그렇다고 ‘다르다’는 게 적대적인 양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불교는 ‘정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유일한 종교이다. 명확한 차이를 알고 이를 통해 진정한 상호이해로 나아가자는 게 이 책의 목적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서 출발한 이 책은 궁극적으로 종교 간 평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 불교는 ‘논쟁하지 않는 종교’라는 오해를 받는다. 반박하기보다 포용하고, 내세우기보다 수렴할 것이라는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논쟁하지 않는 종교’에 대한 인식이 강했다. 기독교의 훼불 행위들은 바로 불교가 ‘논쟁하지 않는 종교’라는 인식이 뒷받침 됐기에 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더불어 불자들이 이런 인식을 스스로 받아들여 내면화한 것 역시 큰 요인이 됐다. 이 책은 바로 ‘논쟁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논쟁을 통해 타파하고 있다.

불교는 석가모니를 비롯해 수많은 이들이 펼쳐온 논쟁의 역사다. 석가모니는 바라문교를 비롯한 다양한 종교와의 논쟁을 통해 법을 세상을 전했다. 특히 논쟁 문화가 발달한 인도서 상대의 논리를 꺾는 것은 단순히 교리적 우월성의 입증은 넘어 지배계급과 민중들의 지지를 이끄는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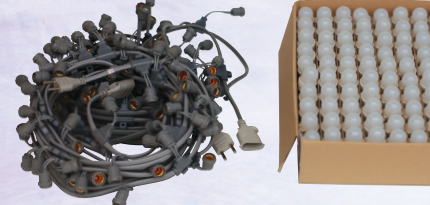
이런 불교논리학 전통은 용수를 비롯해 세친, 무착, 지나, 법칭, 월칭 등 기라성 같은 불교논사들에게 이어졌다. 이민족을 오랑캐로 취급하는 중국에서 불교가 활짝 꽃 피고 동아시아 각지로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에도 탁월한 논리와 진리의 우월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리에 대한 상호 논쟁은 뜻된 견해를 바꿔 참다운 지혜와 자비로 이끄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 이 책이 주는 핵심 교훈이다.

불교용품 전문·고급 연등·봉축 현수막

2015 연등 특별공급(한정분)

모든 연등 8cm 기준 전국 어느 상점에서나 3,000원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연등 및 각종 전선, LED 전구



▶봉축리본



▶종이등표



▶가야자비연등 · 가야자비연등 6cm 줄등용



▶차걸이 · 연꽃차걸이/평등연꽃차걸이



▶지하철현수막



▶어깨띠



▶종이주름등



▶세로거지형 현수막



▶고급 칼라연등 : 진분홍, 연분홍, 보라, 다홍, 오렌지 8cm



▶설화등 : 다홍, 연분홍, 진분홍, 오렌지, 보라 8cm



▶가야 공단등 : 연분홍, 오렌지, 진분홍, 다홍, 보라 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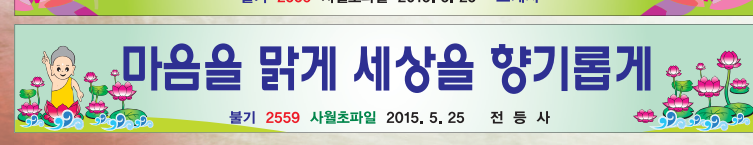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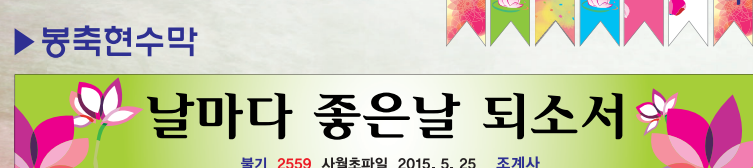


*공단/실크/수입시등 : 진분홍, 개방형(오렌지), 밀폐형(다홍) 8cm



*황금등 : 8cm

*자비연등 : 8cm



불교장엄용품전문
가야기획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상담하십시오.

가격 할인 예외 품목